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디자인학 박사학위논문

조선왕조 의궤의 시각적 재구성에 대한 연구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를 중심으로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
허 경 원

조선왕조 의궤의
시각적 재구성에 대한 연구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를 중심으로

지도 교수 백명진

이 논문을 디자인학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
허 경 원

허경원의 디자인학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2월

위 원 장 김 수 정 (인)

부 위 원 장 윤 주 현 (인)

위 원 백 명 진 (인)

위 원 채 정 우 (인)

위 원 하 준 수 (인)

국문초록

본 논문은 고유문화를 시각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에 대한 연구이다. 우리 고유문화만이 갖는 아름다움과 주제, 정보를 시각 문화컨텐츠로 재구성, 시퀀셜 디자인(Sequential Design: 연속성을 지닌 디자인) 인 그림책의 형태로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다양한 우리 문화원형 중 조선시대 국가나 왕실의 중요한 의식과 행사의 개최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종합 보고서이자 우리나라만의 국가 통치철학과 운영 체계를 보여주는 독특한 기록 문화인 조선왕조 의궤를 주제로 선택하였다.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기록된 방대한 양의 의궤 중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를 연구의 중심으로 하였다. 왕과 왕비의 가례 전반의 내용중 친영 의식 이후 행해진 도성 행렬을 그린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에서 가례 행렬속에 담긴 정보와 행렬을 이루기 위한 준비와 내용을 연구하여 세부 주제로 나누고 내용을 구성, 이미지를 창작하였다. 단순히 반차도에 그려진 행렬의 표면적인 이미지를 나누어 시각 정리한 것이 아니라 행렬을 기준으로 가례 행렬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사건, 현재 행렬속 상황, 행렬 이후에 일어난 내용인 전 후 상황까지를 반차도와 가례도감 의궤, 영조실록, 승정원 일기 등의 역사적 기록을 함께 찾아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역사를 고증하며 문화원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고유문화를 독창적인 내용으로 창작 연구자만의 창의적 콘텐츠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문화의 재현은 창작자 개인 이전에 국가와 민족의 정신과 존재성을 나타내므로 문화를 왜곡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문화원형에 대한 정확한 연구와 근접문화를 연결하며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주제 장 단락별로 행렬의 전반을 살펴보면서 점차 행렬의 내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주제는 주제에 맞는 그림책 형태로 그림이

연속 나열되며 이야기가 진행되는 시퀀스의 흐름을 지니도록 하였다. 또한 이들 개별 주제의 그림책을 순차적으로 나열해보면 반차도의 외부 전체에서 내부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주제의 흐름이 연결되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반차도를 자세히 알게 하는 정보 전달과 동시에 당시 조선시대의 왕실, 혼례 문화와 백성들의 시대 상황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도적인 흐름으로 구성하였다. 내용적 측면 외에 표현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실험하였는데 주제와 그림 내용에 맞는 각기 다른 북아트와 제본 방법, 책의 구조로 기획하여 책 내용의 흐름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여 그림책으로 완성하였다.

본 논문은 하나의 고유문화 원형을 분석하여 그 안에서 다각도의 내용으로 구별, 선택하여 재구성하는 시각 연구방법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 고유문화, 일러스트레이션, 그림책, 시퀀셜 디자인, Sequential Design

학 번 : 2010-30337

목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2. 연구 주제	4
3. 연구 범위	10
4. 연구 방법	11
II.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 반차도의 시각적 재구성	15
1. 함께 걷는 자 가례 행렬을 이루는 사람들	16
2. 길 가례 행렬이 가는 길	20
3. 소중한 여덟 가지 여덟 가마	23
4. 악인 樂人 고취와 내취	30
5. 왕실 의장기 속 신령한 동물 사전	39
6. 기쁨을 내리는 글 반교	50
7. 영조와 정순왕후, 각자의 마음	56
8. 최종 작품	67
III. 결론	75
참고문헌	79
ABSTRACT	83

그림목차

[그림 1-1]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1759	6
[그림 1-2]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하권 반차도, 1759	8
[그림 1-3] 사라 파넬리, 신화속 괴물, 2004	10
[그림 1-4] Various Artists, Beasts of India, 2005	10
[그림 1-5] Ghislaine Herbéra, Monsieur cent têtes, 2010	10
[그림 1-6] 데이비드 젠틀맨, 런던 차링 크로스 역 플랫폼 벽화, 1979	12
[그림 1-7] 부루노 무나리, Nella notte buia, 1956, libri illeggibili, 1949	13
[그림 2-1] 함께 걷는 자, 표지	18
[그림 2-2] 함께 걷는 자, 펼침면	19
[그림 2-3] 길, 초기작	21
[그림 2-4] 길	22
[그림 2-5] 여덟 가마, 초기작	24
[그림 2-6] 여덟 가마, 표지	25
[그림 2-7] 여덟 가마, 펼침면 1, 2, 2-2	26
[그림 2-8] 여덟 가마, 펼침면 3, 3-2, 4	27
[그림 2-9] 여덟 가마, 펼침면 4-2, 5, 5-2	28
[그림 2-10] 여덟 가마, 펼침면 6, 6-2, 7	29
[그림 2-11] 악인, 초기 스케치	31
[그림 2-12] 악인, 중간 스케치	32
[그림 2-13] 악인, 표지	34
[그림 2-14] 악인, 내지, 1 당비파, 2 장구, 3 당피리, 4 당적	35
[그림 2-15] 악인, 내지, 5 통소, 6 해금, 7 징, 8 태평소	36
[그림 2-16] 악인, 내지, 9 나발, 10 박	37
[그림 2-17] 악인, 내지, 11 대금, 12 나각	38
[그림 2-18] 왕실 의장기 속 신령한 동물사전, 표지	41

[그림 2-19] 왕실 의장기 속 신령한 동물사전, 펼침면, 1 청룡, 2 주작	42
[그림 2-20] 왕실 의장기 속 신령한 동물사전, 펼침면, 3 백호, 4 현무	43
[그림 2-21] 왕실 의장기 속 신령한 동물사전, 펼침면, 5 황룡, 6 백택	44
[그림 2-22] 왕실 의장기 속 신령한 동물사전, 펼침면, 7 벽봉, 8 삼각	45
[그림 2-23] 왕실 의장기 속 신령한 동물사전, 펼침면, 9 각단, 10 용마	46
[그림 2-24] 왕실 의장기 속 신령한 동물사전, 펼침면, 11 현학, 12 백학	47
[그림 2-25] 왕실 의장기 속 신령한 동물사전, 펼침면, 13 가귀선인, 14 봉황	48
[그림 2-26] 왕실 의장기 속 신령한 동물사전, 펼침면, 15 공작, 16 쌍룡	49
[그림 2-27] 기쁨을 내리는 글, 표지	52
[그림 2-28] 기쁨을 내리는 글, 펼침면 1, 2	53
[그림 2-29] 기쁨을 내리는 글, 펼침면 3, 4	54
[그림 2-30] 기쁨을 내리는 글, 펼침면 5, 6	55
[그림 2-31] 연잉군 초상 1714, 영조 어진 1900	58
[그림 2-32] 정순왕후 한글편지, 1801	60
[그림 2-33] 영조와 정순왕후, 각자의 마음, 초기 스케치	62
[그림 2-34] 영조와 정순왕후, 각자의 마음, 표지	63
[그림 2-35] 영조와 정순왕후, 각자의 마음, 펼침면 1, 2, 3	64
[그림 2-36] 영조와 정순왕후, 각자의 마음, 펼침면 4, 5, 6	65
[그림 2-37] 영조와 정순왕후, 각자의 마음, 펼침면 7, 8, 9	66
[그림 2-38] 최종 그림책 모음	67
[그림 2-39] 최종 그림책 - 함께 걷는 자, 길	68
[그림 2-40] 최종 그림책 - 여덟 가마	69
[그림 2-41] 최종 그림책 - 악인	70
[그림 2-42] 최종 그림책 - 왕실 의장기 속 신령한 동물사전	71
[그림 2-43] 최종 그림책 - 기쁨을 내리는 글	72
[그림 2-44] 최종 그림책 - 영조와 정순왕후, 각자의 마음	73
[그림 2-45] 최종 연구작 전시	74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제
3. 연구 범위
4. 연구 방법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타인에게 이미지로 정보를 전달하는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은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차근차근 발전하여 지금의 확고한 예술 장르이자 거대한 출판 시장에 이르게 되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제3자에게 의미를 전달하거나, 내용을 암시하기 위해 제작된 목적이 있는 그림이다. 내용을 이미지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작가는 상상력, 재미, 장식성, 해설, 유익성, 감흥, 설명, 교육, 행동 유발, 감동, 황홀함, 스토리텔링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작품을 제작하고 그 주제를 시각적으로 전달한다.¹

일러스트레이션 연구의 다양한 주제 중 각 나라의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전통적이지만 가장 개성이 강한 작품을 보여주는 고전 분야가 있다. 이를 연속 나열되는 디자인 형식 구조인 그림책의 서사를 통하여 고유문화를 활발히 재창조 해낸다. 예전부터 주로 흥부놀부, 해님달님, 심청전과 같은 고전 서사를 소재로 한 전형적인 이야기책을 구성하는 작품이 많이 발표되었는데 2000년대 이후로는 옛이야기의 화면 재구성 뿐 아니라 문화원형을 발굴 조사, 활용한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고유문화 그림책 작품이 세계에 주목받으며 2009년 볼로냐 북페어에서 한국을 주빈국으로 선정, 조명되었고 당시 프랑스 휘 드 몽드 출판사의 알랭 세리 대표는 “한국의 깊은 문화적 뿌리를 통해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감각을 겸비한 그

¹ 마크 위건, 일러스트레이션 사전, 미진사, p9, 2015

림책이 창작된다고 생각한다.”² 라고 평하였다. 점차 우리 고유문화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늘어나게 되었다. 독창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을 위해서는 개성적인 신선함은 물론, 전달하는 내용이나 기능을 통해서 논리성 있는 연구나 객관성도 요구된다.³ 그러나 기존에 출판된 작품중엔 학술연구자의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하여 발표되기보다는 출판업계의 기획을 통해 발표되는 일러스트레이션이 대부분이다. 출판사 역시 연구와 고증을 바탕으로 하는 책을 제작하지만 학술적 연구와 목적 방향이 다르다. 출판사의 그림책은 대부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육과 해설을 위해 제작되는데 제작 의도와 대상 독자층, 예산과 출판사의 성향에 맞는 그림 표현을 제작하거나 혹은 문화원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작가와 출판사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작품이므로 내용과 이미지 표현에 제한이 생기고 주제가 반복 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세계 시장에 내놓을 우리만의 ‘아이디어’와 ‘가치관’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떤 콘텐츠에 담아서 어떤 문화상품으로 승부수를 걸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⁴이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점과 물음에 연구자가 학술적 연구와 작품 창작을 통하여 상황에 대한 제한없는 순수한, 독창적인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그림책의 역할이 자국의 전통 교육을 위함에서 나아가 세계 속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 국가의 정체성을 알리는 문화 확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한다. 앞으로 한국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며 우리 민족의 정서와 전통을 살리면서 시대를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² 윤민용,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폐막, 주빈국 한국 뮌헨 연애편, 경향일보, 2009년 03월25일

³ 두산백과, 일러스트레이션

⁴ 박은지, 어린이를 위한 국내 지식그림책의 미래설계,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p.3, 2010

가치를 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를 예술적으로 작품화하는 것이 중요하다.⁵ 이에 연구자는 고유문화를 아름답게 시각적으로 재구성하는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리 문화원형을 주제로 활용하는 그림책의 구조와 방법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실험하고자 한다.

2. 연구 주제

연구자는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로서 늘 연구자가 존재하는 지역의 문화, 역사인 과거와 현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간의 작업은 연구자의 학업적 배경이 된 영국의 북부 도시 던디와 남부 도시 브라이튼에 관하여 도시의 역사에서부터 랜드 마크, 그 안에 사는 외국인 입장의 경험과 추억을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가이드북으로 작업하였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도시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 한국의 아줌마와 문화, 한국의 전통과 동시대를 시각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을 하였다. 박사 과정 중에는 덕혜옹주의 일생을 그래픽노블로 작업하였으며, 신라 향가 제망매가 글에 신라 토우 조형을 평면의 그림으로 해석, 둘의 내용을 복합한 그림책 ‘나의 누이에게’와 문화원형을 활용하는 구조를 연구 발표 하였다.(2013, 조형미디어학 등재) 연구 외에 ‘재주 많은 다섯형제’ 등과 같은 전래동화를 재해석하여 출판하기도 하였다. (2013, 을파소)

이러한 단편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박사 논문을 한국의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더 깊게, 현대적으로 분석, 해설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한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우리만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왕실 문화를

⁵ 최경희, 이야기그림책에 나타난 한국전통문화, 한국아동문학연구, p.57, 2011

널리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찾으려 하였다. 조선 왕실 문화 중 가장 성대하고 기쁜 행사인 가례를 주제로 잡게 되었다.

조선왕조의례, 반차도

의례

의례(儀軌)란 ‘의식(儀式)의 궤범(軌範)’이라는 뜻으로 의식의 모범이 되는 책을 의미한다. 의례는 조선시대 국가나 왕실의 중요한 의식과 행사를 개최한 후 모든 과정을 기록한 일종의 종합 보고서이다. 의례에는 필요에 따라 그림을 함께 그려 넣어 이해를 돕기도 하였다. 의례는 의례의 전말(顛末)을 자세히 기록하여 후대 사람들이 예법에 맞게, 그리고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전례(典例)를 세우기 위해 제작되었다. 의례에는 국가나 왕실의 주요 행사의 준비와 진행 과정, 의례 절차와 내용, 소요 경비, 참가 인원, 포상 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국정 운영의 모범을 삼고자 했던 것이다.⁶ 의례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발견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만 작성된 독특한 형식의 책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⁷

조선시대에는 거행했던 국가 의식과 행사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종류의 의례를 제작하였다. 의례는 그 내용과 특징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오례(五禮)별, 주제별로 분류할 수 있다. 오례별 분류는 조선시대 의례 규범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체제에 따라 전체 의례를 길례(吉禮), 가례(嘉禮), 흉례(凶禮), 빈례(賓禮), 군례(軍禮)의 오례(五禮)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주제별 분류는 행사의 내용에 따라 왕실의 일생, 왕실의 활동, 왕실의

⁶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례, <http://uigwe.museum.go.kr>

⁷ 김문식, 신병주, 조선 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례, 돌베개, p30, 2005

사업으로 분류하였는데, 왕실의 일생에는 왕실 구성원의 출생, 책례, 관례, 혼례, 장례와 같은 통과례와 차후 추송 관련 의례가, 왕실의 활동에는 잔치, 제사, 친경과 친잠, 대사례, 사신의 영접 등이, 왕실의 사업에는 기록물 편찬, 어진 제작, 성곽이나 궁궐 영건, 화기나 악기 제작 등 각 왕대에 특별히 시행한 행사 관련 의례가 해당된다.

가례도감의궤와 반차도

가례(嘉禮)란 원래 왕실의 큰 경사를 뜻하는 말로서, 왕실의 혼인이나 책봉, 각종 잔치 등의 의식을 말한다. 그러나 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가례는 왕실의 혼인 의식, 그중에서도 특히 왕이나 왕세자의 혼인을 뜻하는 용어이다.⁸ 가례도감의궤는 의례 기록과 그림 중에서 축제의 분위기가 잘 나타난다. 가례도감에 수록된 반차도는 국왕이나 왕세자가 별궁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여 궁궐로 돌아오는 행차를 그린 친영(親迎) 반차도로 당시의 상황과 왕과 왕비의 가마, 호위 군대 등 행사에 참여하는 이들 행렬의 순서, 사용 물품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림1-1]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1759

⁸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http://uigwe.museum.go.kr>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1759년 제작된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는 왕의 가례로, 가례도감의궤 중 최초로 상·하 두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다. 상권은 가례를 위한 준비와 물품들을 정리하였고, 하권은 후반부에는 실은 반차도 행렬 그림에는 왕과 왕비의 가마가 처음으로 함께 등장하였고 긴 행렬이 펼쳐져 있다. 의식 절차를 정밀하고 체계화하여 왕실 혼인의 구체적인 모습과 당시 국가의 정치, 문화, 경제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⁹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

1759년 5월 5일 영조의 명으로 가례 준비가 시작된 날부터, 6월 9일 왕비 최종 간택, 13일 납채(納采), 17일 납징(納徵), 19일 고기(告期), 20일 왕비 책봉, 22일 친영(親迎) 및 동뢰연(同牢宴) 등에 이르는 혼례 의식의 모든 과정을 담고 있다. 조선시대 왕실 결혼식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거행되었는지 그 전모를 살필 수 있으며, 특히 친영하여 왕비를 궁궐로 맞이해 들어오는 행렬을 그린 반차도는 왕과 왕비의 행렬이 함께 그려진 최초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반차도는 영조가 어의동 별궁에서 친영의식을 행한 후 동뢰연을 위해 왕비와 함께 대궐로 가는 행렬을 차례대로 그린 것이다. 신부가 대궐로 가는 행렬만 묘사되던 기존의 가례 반차도와는 달리 왕과 왕비의 행렬이 같이 묘사되었다는 점에서 획기적 의의가 있다. 왕의 거동 반차도는 영조의 하교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대가도가와 전사대, 대가의장을 앞세우고 전후좌우에서 군사들이 겹겹이 시위하는 가운데 행차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로서 중요하다. 왕비의 반차도는 기존 방식대로 왕비 의장을 진열한 가운데

⁹신병주, 66세의 영조 15세 신부를 맞이하다, 효형출판, p35, 2001

교명·옥책·금보·명복 등 각종 의물을 모신 가마와 짐꾼들을 앞세우고 가는 왕비 행렬이 묘사되었다. 왕과 왕비의 행렬은 각각의 시위군과 의장, 배중 관원을 거느린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당시에는 영조의 특명으로 하나의 행렬로 편성되었다. 도감에서는 친영을 위한 안팎의 예행연습이 있기 전인 6월 14일, 영조와 세자, 세손용으로 반차도 3건을 제작하여 올렸다. 왕과 왕비의 행렬이 같이 등장하는 반차도는 ‘친영반차도’라 불렸다.

총 50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왕의 행렬이 28면, 왕비의 행렬이 22면이다. 이 반차도는 18세기 어람용 반차도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동시에 19세기 친영 반차도 제작의 규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한국학중앙연구원 제송희)¹⁰



[그림1-2]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례 하권 반차도, 1759

반차도에 관한 연구

반차도에 담긴 정보는 정치사, 경제사, 건축사, 과학사, 언어사, 복식사, 음식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참고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자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한국학 학술자료로써 의미가 크다. 현재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 자료

¹⁰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례, <http://uigwe.museum.go.kr>

로 활용되어 국어사, 회화, 도자, 공예, 복식, 고문서 연구 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조선시대 왕실 문화와 제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기록물로써 그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¹¹

반차도를 바탕으로 디자인 분야에서는 기록 물품과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인포그래픽디자인, 행렬을 3차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기도 하였으며 반차도의 이미지를 그대로 살려 제품디자인에 적용, 반차도 행렬 자체를 닥종이 인형으로 제작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 반차도를 연구자의 입장에서 해석, 재구성한 일러스트레이션은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세부적으로 반차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왕 행렬의 의장기 속 동물이 나온다. 이 동물은 신화속 동물인데 우리나라 외에도 각 나라에는 그 문화속에 존재하는 신령한 동물이 있다. 이를 작가가 정리하여 그림을 재해석하거나 스토리를 다시 엮어 그림책으로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창작물을 연구하는 작품이 전 세계에 다양하게 존재한다. 연구자가 소장하고 있는 책을 예로 들면 영국, 프랑스, 인도 작가의 나라별 작품이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유물 속 동물을 정리해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다시 그린 백과사전의 형식의 책, 깃발 원형을 사진으로 정리한 책만이 존재한다. 위에 언급한 것 같은 왕실을 상징하는 신화 동물을 작가가 다시 표현하고 새로 해석한 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연구자는 반차도내의 소재와 연구 가치를 찾기 시작하였다.

¹¹ 최은영,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례의 편찬과정과 기록학적 가치, 충남대학교, p.76, 2009



[그림1-3] 사라 파넬리, 신화속 괴물, 2004



[그림1-4] Various Artists, Beasts of India, 2005



[그림1-5] Ghislaine Herbéra, Monsieur cent têtes, 2010

3. 연구 범위

반차도의 분석 범위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은 앞서 서술한 내용처럼 상·하 두권이며 가례를 준비하면서부터 행차가 끝나는 상황 진행까지, 가례에 사용한 물품들을 이후 수리하여 궁궐의 어느 곳에서 사용하기로 하였는지까지 자세히 기록하였다. 가례도감의례에는 각 업무 담당 부서가 준비한 일과 오고 간 문서를

기록해놓은 일방의궤, 이방의궤, 삼방의궤, 별공작의궤, 수리소의궤 등 다양한 각방의궤가 함께 한다.

연구자는 가례 반차도의 행차 전 후 혼례의 핵심 상황인 왕비를 간택하는 일에서부터 혼례 준비 방법과 혼례 의식 절차 등 중요 사건을 의궤와 영조 실록을 연결, 연구하여 초반 작업을 하였으나 연구를 진행해 갈수록 해당되는 범위가 확장, 광범위해지면서 연구의 방향성과 주제가 흩어짐을 느꼈다. 그리하여 연구 내용 중 가례도감의궤 중 하권인 반차도 행렬 상황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하였다. 반차도 그림 안의 현재 왕과 왕비의 행차 현장을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제한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4. 연구 방법

의궤는 국왕의 열람을 위해 제작한 어람용(御覽用) 의궤와 나누어 보관하기 위한 동일한 내용의 분상용(分上用) 의궤를 제작한다. 외규장각에 보관한 어람용 의궤는 19세기 프랑스군에 의해 약탈되어 이전의 영조정순왕후 가례도감의궤 반차도 연구는 대부분 국내에 보존된 사본인 분상용 의궤 반차도를 중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몇 년 전 프랑스로부터 어람용 의궤가 반환되어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사본에 비해 정교한 그림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 동일한 내용이지만 하나 어람용 의궤는 왕의 열람을 위해 특별히 제작하였기 때문에 분상용에 비해 종지와 표지, 안료의 재질, 장정 방법, 서체와 필사, 그림의 수준 등 그 형태와 재질, 제작 기법 등이 매우 뛰어나다. 즉, 어람용으로 제작된 외규장각 의궤는 조선시대 당대 최고의 도서 수준과 예술적 품격을 느낄 수 있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매우 우수하다.¹² 이에 연

¹²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http://uigwe.museum.go.kr>

구자는 어람용 의례 반차도를 중심으로 하여 정확한 그림과 고증 하에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연구 실험

연구자는 그간 시퀀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그림책을 연구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림의 주제를 스토리텔링으로 나열하여 일러스트레이션한 후 흐름에 맞는 북아트로 전체를 구성하는 형식이다. 연구자는 이번 연구에서 각각의 주제를 그에 맞는 흐름, 표현법, 제본, 북아트를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각각의 주제와 내용에 맞게 채색의 방법과 도구를 실험하였다. 아름답고 섬세한 주제에는 그에 맞는 섬세한 표현과 따스함이 느껴지는 채색으로, 왕의 위엄을 보여주는 부분에는 강함과 강렬한 색, 터치를 사용하여 내용 표현을 극대화 시키고자 하였다.

연구자의 작품은 대부분 영국의 전통적인 일러스트레이션 양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유럽 그림을 모방 혹은 선망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오랜 시간 학업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작가의 작업 배경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영국 일러스트레이터 데이비드 젠틀맨(David Gentleman)의 런던 차링 크로스 지하철 역사 벽화 작품과 이탈리아 디자이너 브루노 무나리(Bruno Munari)의 북아트와 디자인에서 연구 표현에 관한 영향을 받았다.



[그림 1-6] 데이비드 젠틀맨, 런던 차링 크로스 역 플랫폼 벽화, 1979



[그림 1-7] 부루노 무나리, Nella notte buia, 1956, libri illeggibili, 1949

원화와 새로운 해석

일러스트레이션은 인간적인 감성에 호소되어 의견에 동감을 끌어내기 쉽고 작가의 인생관 또는 내면의 풍경을 엿볼 수 있게 하며 전달하려는 정보 또는 메시지 이상의 상상력을 전달하는 특성이 있다.¹³ 이러한 장점과 자율성으로 작가가 독창적인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문화원형을 다룰 때는 신중한 아이디어와 가치관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독창적인 내용의 작품이 중요하지만 그 안에 문화원형이 갖고 있는 정체성, 고유성을 유지하여 원형을 해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화산업 이전에 문화의 재현은 한 민족의 문화와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존재의 의미와 중요성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기 때문에¹⁴, 문화를 왜곡하거나 다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문화원형의 배경에 대한 정확한 연구와 원형에 상호작용을 한 근접문화에도 접근하는 연구 인식과 태도를 갖고자 한다.

¹³ 장범순, 일러스트레이션의 ORIGINALITY (작가 고유의 표현)에 관한 연구,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2009, vol.21

¹⁴ 이연학, 문화교류를 위한 한국적 문화정체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p.29, 2008

연구자의 작업은 행렬의 전반을 살펴보면서 하나씩 행렬의 내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작품은 총 7가지 주제로 각각 구성, 총 7권의 그림책으로 구성하였다. 각 장마다 주제가 있고 그림이 나열, 이야기가 진행되는 시퀀스 흐름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 7권의 그림책을 하나로 묶어 큰 틀에서 보면 1장에서 7장으로 가는 주제 또한 시퀀스 디자인을 이룬다. 1장은 반차도를 가장 멀리서, 행렬 전체를 보았을 때 보여지는 행렬자 전체에 대한 분류, 2장은 행렬자들이 걸어가는 행차 길이라는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며 3장부터 5장까지는 행렬안의 세부 내용을 정리하여 분석하는 내용이다. 3장은 혼례에 등장하는 가마, 4장은 행렬의 악기 연주자, 5장은 왕실 의장기 속 동물을 분석한 내용으로 이어진다. 이후 6장은 혼례에 대한 영조의 입장을 설명한 내용, 7장은 혼례에 대한 당사자들의 상황과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점차 반차도의 표면에서 내부로 분석 연구하는 주제 흐름으로 연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작품을 보는 독자가 점차 반차도를 자세히 알게 하는 정보 전달과 동시에 영조정순왕후의 혼례와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의도적인 흐름 구성이기도 하다.

Ⅱ.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 반차도의 시각적 재구성

1. 함께 걷는 자
가례 행렬을 이루는 사람들
2. 길
가례 행렬이 가는 길
3. 소중한 여덟 가지
여덟 가마
4. 악인 樂人
고취와 내취
5. 왕실 의장기 속 신령한 동물 사전
6. 기쁨을 내리는 글
반교
7. 영조와 정순왕후, 각자의 마음
8. 최종 작품

1. 함께 걷는 자 가례 행렬을 이루는 사람들

작품 배경

반차도를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앞부분은 왕의 행차, 뒷부분은 왕비의 행차이다. 반차도에는 1,188명(보행 인물 797명, 말 탄 인물 392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다. 반차도에는 영조가 탄 대가(大駕)를 앞에서 호위하는 선상(先廂)과 전사대(前射隊)를 비롯하여 왕과 왕비의 가마, 그리고 이들을 뒤에서 호위하는 후상(後廂), 후사대(後射隊) 등의 순으로 행진한다. 행사에 참여한 고위 관료, 호위 병력, 궁중의 상궁, 내시, 악대, 행렬의 분위기를 잡는 뇌군(현병), 상궁 등이 자신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 위치를 정하여 행진한다. 후반부에는 여성들의 모습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말을 탄 상궁을 비롯하여 침선비(針線婢) 등 궁궐의 하위직 여성들의 모습까지 다양하다. 신분에 따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서로 다른 것이 이채롭게 표현되어 있는데, 갖은 색깔의 옷의 모습과 너울을 쓴 여인의 모습이나 각종의 군복을 착용한 기병, 보병들의 모습이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다.¹⁵ 반차도를 통해 그들의 직위와 직업을 정확히 알 수 있다. 반차도 주인공을 제외한 행렬 속 각각의 인물들을 구성하고자 한다.

작품 연구

초반 인물 분류에는 각기 자세하게 그려진 인물을 다시 재현하여 그리듯이 나누었으나 이는 연구자의 창작이라기보다는 반차도 원형그림을 분류하는 작업으로만 나타나 인물을 상세 분류하기보다는 직업별로 대분류하고 인물

¹⁵ 문화콘텐츠닷컴, 오색채운, 의궤(儀軌)를 통해본 조선의 왕실축제
www.culturecontent.com

을 외곽 실루엣 형태로만 특징 처리하였으며 각 인물의 외형을 대표하는 색을 선정하여 하나의 색으로 인물을 만드는 과감하게 생략된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반차도 속 행렬 인물을 행렬 순서와 같이 앞쪽에서 부터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하며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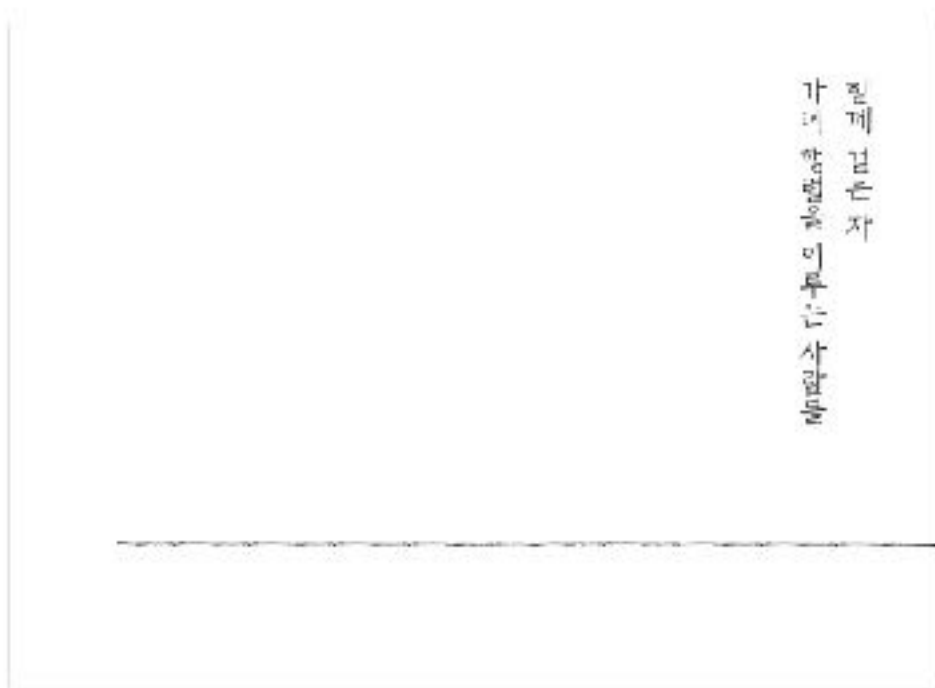
1. 사령 - 각 관청 호위
2. 전사대 - 국왕 가마 호위 부대
3. 무관 - 무예 기술을 시험하는 무과시험 출신의 관리
4. 관원 - 관청 관리
5. 기수 - 기를 드는 사람
6. 악공 - 조선시대 음악 연주를 담당한 음악인
7. 환관 - 궁정에서 사역하는 내관
8. 내인 - 궁중에서 왕과 왕비의 시중을 든 정5품 상궁 이하의 궁인
9. 상궁 - 내명부의 궁관계층에 속하는 정5품의 여관
10. 내관 - 궁중의 제반업무를 관장한 관부

인물의 특징을 단순하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종이를 잘라 형태를 만드는 페이퍼컷 표현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인물별 특징 색을 선정하여 컬러 페이퍼로 제작하였다. 인물 특징 색은 인물의 옷이나 장신구의 색, 들고 있는 물건의 특징 중 가장 대표되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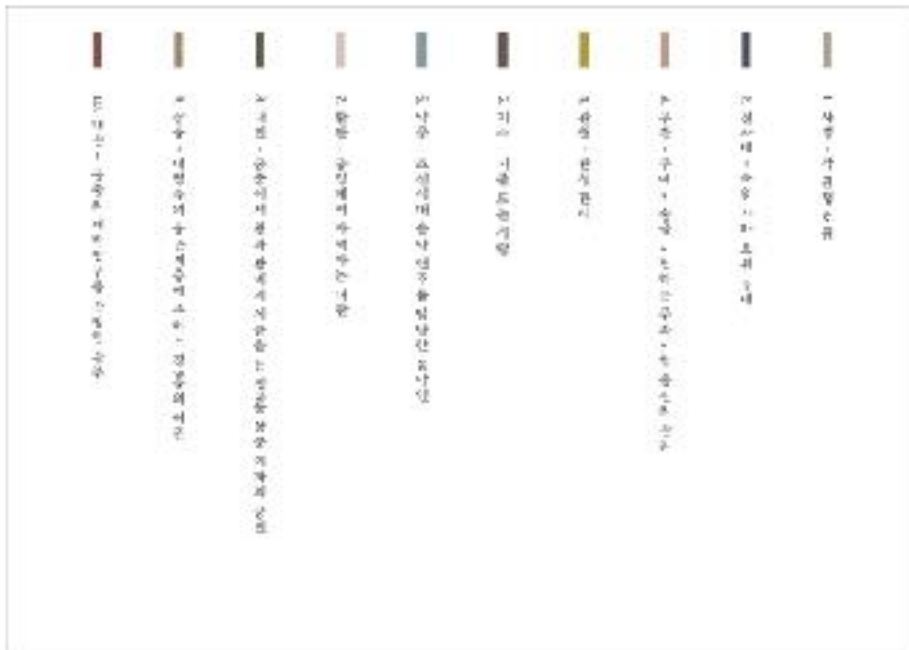
인물을 각각 한 페이지에 하나씩 넣어 순차적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직업별 설명을 하는 시퀀스보다는 한눈에 인물들 모두가 현재 앞쪽을 향해 행렬하듯이, 복직이는 느낌이 들도록 일렬로 나열하여 한눈에 모든 인물이 보이는 북아트를 사용하였다.

글이 없이 인물이 나열되는 북아트 작품이지만 책의 커버 안쪽에 인물의 리스트와 색에 대한 설명을 넣어 정보를 전달한다.

작품



[그림 2-1] 함께 걷는 자, 표지



[그림 2-2] 함께 걷는 자, 펄침면

2장. 길

가례 행렬이 가는 길

작품 배경

반차도는 영조가 어의동 별궁에 친영의식을 행한 후 동퇴연을 위해 왕비와 함께 대궐로 가는 행렬을 차례대로 그린 것이다. 국왕의 친영 행렬이 창경궁의 홍화문을 나와, 이현고개 앞을 거쳐 별궁이 있는 어의궁으로 가 친영의식을 행하고 왕비와 함께 종묘 앞 동구와 파자전 앞 석교를 지나 창덕궁 돈화문으로 돌아오는 행차 방향이라고 의궤에 기록되어 있다.

이 장에서 가례 행렬이 지나간 길을 추적하여 당시 행렬 길을 지도로 표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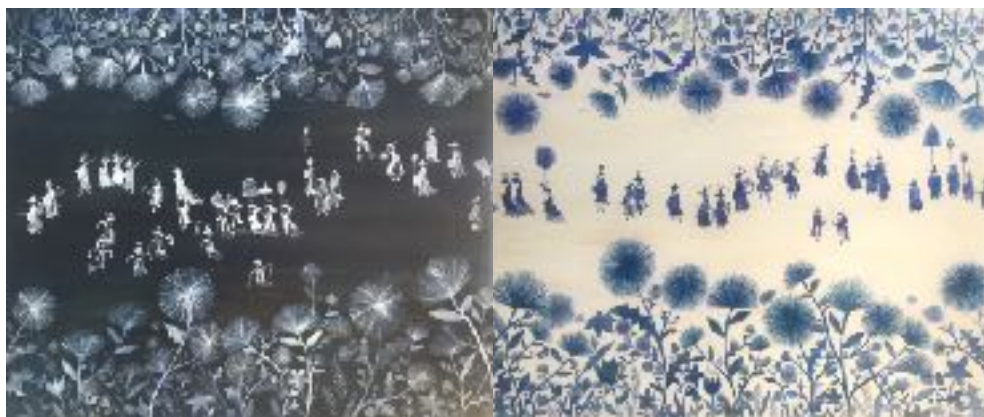
지도는 영조 26 (1750년) 경 제작한 도성도都城圖와 영조 30(1754)~영조 40(1764)년 제작한 도성대지도都城大地圖 를 바탕으로 하여 의궤에 나온 행렬 진행 방향을 추적하였다.

작품 연구

연구자가 초기에 그린 왕실 행렬의 모습은 차분하고 위엄있는 표현이다. 그림은 청자와 백자의 느낌을 주기위해 청색과 백색, 금색과 은색 펄 물감을 사용하여 차분하면서도 빛나게 나타내었다. 25호 캔버스(800x650mm) 두 점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려진 작품은 행렬의 길을 길고 웅장한 분위기로 표현하였다.

이후 연구를 진행하며 왕과 왕비가 궁을 나와 도성 안을 행차하고 가는데 도성의 분위기는 어떠했을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사실 기록을 살펴보았다. 영조정순왕후 가례 행렬은 종루거리와 이현고개를 지났음이 나타나는데,

종루와 이현은 당시 최대의 시장이었다.¹⁶ 이 행렬을 통해 백성들은 국왕과 왕비의 가마를 직접 볼 수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다. 당시의 행사를 담은 풍속화 속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이나 정조의 수원화성행차도의 행차를 따라가는 백성들, 한참 후이긴 하지만 고종의 도성 행렬 사진 속 분위기를 살펴보면 발 딛을 틈이 없을 만큼 많은 백성들이 모여 관심을 가졌다. 국왕의 행렬 자체는 위엄이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백성과 도성의 분위기는 축제와 같았으리라 추측하게 되었다.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고 더욱이 왕의 혼례는 큰 경사이자 한번 뿐인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이 모이고 기쁨을 나누었을 것이다.



[그림 2-3] 길, 초기작

이에 지도를 초기 그림처럼 차분하게 표현하기보다는 밝고 경쾌한 느낌으로 표현하기로 변경하였다. 영조가 궁궐을 나와 왕비를 맞으러 별궁으로 가는 순차적인 길을 지도안에 점선으로 표현, 행렬 루트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¹⁶ 문화콘텐츠닷컴, 오색채운, 의궤(儀軌)를 통해본 조선의 왕실축제
www.culturecontent.com

지도의 형태를 위하여 한 장의 큰 화면으로 그림을 구성하였고, 지도를 접어 포켓에 넣는 지도 책 형태로 제작하였다.

작품



[그림 2-4] 길

3장. 소중한 여덟 가지 여덟 가마

작품 배경

반차도에 인물과 함께 가마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왕이 타는 가마 연(輦) 과 왕비가 타는 가마 여(輿) 이외에 행렬의 맨 앞 왕이 타는 간단한 가마 옥교(玉轎), 임금이 탄 거가(車駕)보다 앞장서서 가는 경호용 빈 가마 부련(副輦)과 왕비 책봉에 관계된 물품(교명문, 옥책, 금보, 명복)을 실은 가마들이 행렬에 순차적으로 나온다. 왕의 가마는 백성들이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개방형 가마이지만 가마만 그려져 있고 왕의 모습은 없다. 왕의 얼굴은 신성한 것이므로 함부로 그림안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왕비의 가마와 물품을 실은 가마는 폐쇄형이므로 내부 내용을 알수 없다. 이에 연구자는 가마를 행렬 순서대로 정리, 가마 안의 물품과 함께 구성하는 그림책을 연구하고자 한다.

작품 연구

작품 초기 가마의 나무 느낌을 살려보기 위하여 페이퍼컷 작업을 시도하였으나 가마와 가마 속 왕실 물품의 귀함을 보여주기에 너무 많이 생략되는 느낌을 들어 표현법을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오일파스텔로 세부 표현을 나타내었다. 오일파스텔을 사용한 가마의 느낌은 섬세한 표현보다는 강하고 투박한 질감, 어두운 느낌이 많이 나서 재료 사용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행렬에서 주인공인 왕과 왕비와 함께 가마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가마 작품은 최대한 아름답고 섬세하게, 화려한 느낌을 중요시 하였다.



[그림 2-5] 여덟 가마, 초기작

다양한 표현 실험의 최종 결정은 색연필을 사용하여 섬세하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또한 실제 가마의 형태는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색은 원형의 원색 그대로를 사용하기보다는 동일 계열의 색 안에서 연구자가 해석, 배색하여 작업하기로 결정하였다. 형태와 색을 모두 원형과 같게 사용하면 연구자의 연구 작품이라기보다는 고전 가마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도감(圖鑑)이 되기 때문에 연구자의 개성을 살리고자 하였다.

페이지 내에서 가마의 문을 위로 여는 것 같은 형식의 북아트를 사용하여 폐쇄형 가마와 그 안의 내용물을 볼 수 있는 재미를 주었다.

작품



[그림 2-6] 여덟 가마, 표지



[그림 2-7] 여덟 가마, 펼침면 1, 2, 2-2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품전시관



[그림 2-9] 여덟 가마, 펼침면 4-2, 5, 5-2



한국민속
박물관 소장품



한국민속
박물관 소장품

[그림 2-10] 여덟 가마, 펼침면 6, 6-2, 7

4장. 악인 樂人 고취와 내취

작품 배경

반차도를 보면 징과 북을 든 자들이 행렬 앞쪽에 있고, 궁중음악을 담당한 악대인 내취 8명이 뒤를 잇는다. 그 후로 전부고취, 후부고취라는 군악대 각 10명씩이 왕의 가마 앞뒤에 함께 한다. 이후 왕비의 가마 앞쪽으로 18명의 악공고취가 등장한다. 반차도에는 이들의 옆, 뒤 모습과 함께 악기도 그려져있다. 고취는 모란꽃 흉배를 입었으며 내취는 노란 옷을 입었다.

이 장에서는 악대인과 악기를 정리, 설명하고자 한다.

작품 연구

반차도의 악대인은 옆모습과 뒷모습으로 그려져 있어 악기를 어떻게 들고 가는 것인지, 악기를 연주하는 자세를 어떻게 취하는지, 악기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없다. 이에 이들을 앞 모습으로 바꾸어 연주자의 모습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행렬의 문무관과 다르게 연주자의 옷과 모자에 모란꽃이 그려진 특징에 집중하여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모란꽃이 피어나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반차도의 그림과 연주자의 특징만으로 형태를 연구하였다가 이후 악기 연주자와 악기, 악기의 특성, 연주한 음악의 종류 등 조선 궁중 음악 전반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놓치고 있는 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반차도를 보며 그림의 큰 분위기와 방향을 잡기 위해 상황을 상상하는데, 연주자들은 모두 악기를 들고 행렬 대열에 함께하는 국가의 가장 큰 경사 행렬이니 당연히 기쁜 음악을 연주하며 갈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미지를 연구하였다.



[그림 2-11] 악인, 초기 스케치

그러나 『국조오례의』나 『악학궤범』에는 ‘혼례에는 악기를 진열만 하고 연주는 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주자성리학 이념이 조선 사회에 정착된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소학』에 의하면 ‘며느리를 취한 집에서 3일간 음악을 듣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뒤를 잇는 것을 생각해서 감상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 하여 혼례를 행할때 연주하지 않은 까닭을 설명했다. 혼례는 악기를 연주할 만한 경사만을 생각하는 의식이 아니라 는 뜻이다. 영조는 1762년 1월 세손가례에 임하여 내린 전교에 혼례에서 축하의식을 하지 말 것까지 지시했다. 우리나라의 혼례는 헌가를 진열하기만 하고 연주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3일간 악을 듣지 않는다는 뜻이다.¹⁷

이 기록대로 따랐다면 반차도 행렬에서 의식에 필요한 악기를 소지만하고 연주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행진을 알리고 행진의 시작과 끝의 신호

¹⁷ 신병주, 앞의 책, p226 (참고: 김종수, ‘재변과 국혼에서의 용악’, 한국학보, p59, 1989)

등 필요시에 악기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국왕의 행렬은 엄숙하고 위엄있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림 2-12] 악인, 중간 스케치

이에 따라 작품의 방향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 인물과 악기의 행위를 표현
하기보다 둘을 동일시하여 악기 자체로 의인화하였다. 악기 각각의 음색을
직접 듣고 성격을 부여하며 악기마다 각기 다른 캐릭터로 나타내었다. 캐릭

터는 모두 입이 없는데 이는 행렬동안 연주를 하지 않고 걸어가기 때문에 입 즉, 음악의 발현을 하지 않음을 표현한 것이다.

책의 구성에서는 책 페이지가 넘어가는 그림의 흐름을 주면 개성 강한 캐릭터들이 앞뒤로 연속되면서 서로가 중화, 악화되는 느낌이 들어서 독립적인 그림으로 나누었다. 이를 모아 책 집에 넣어 엮서(혹은 카드)책으로 완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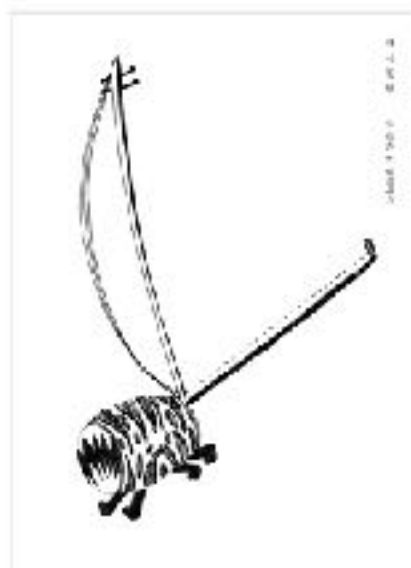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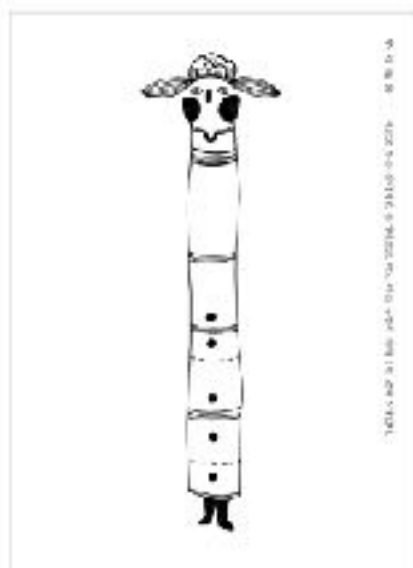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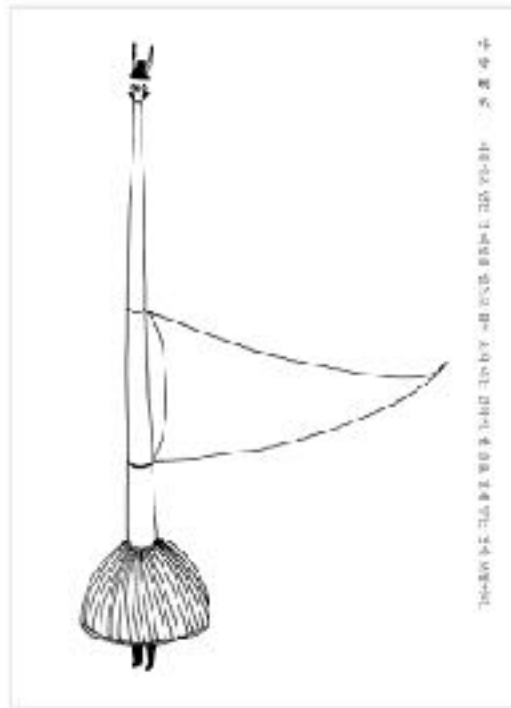
[그림 2-13] 악인,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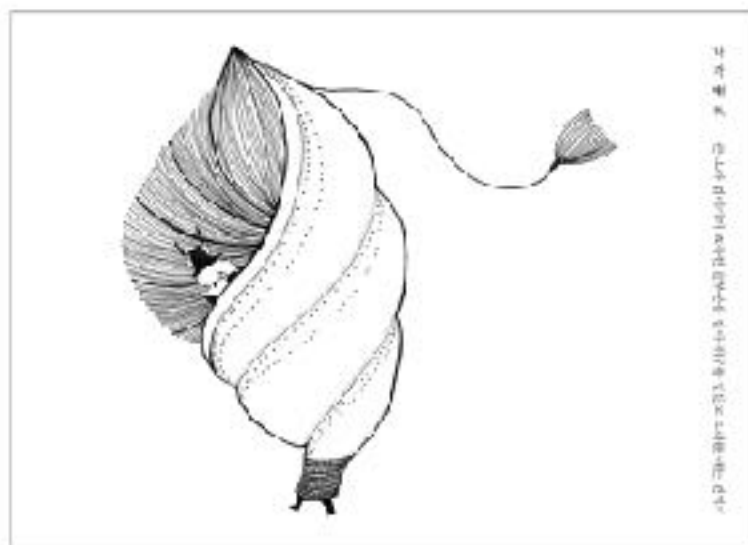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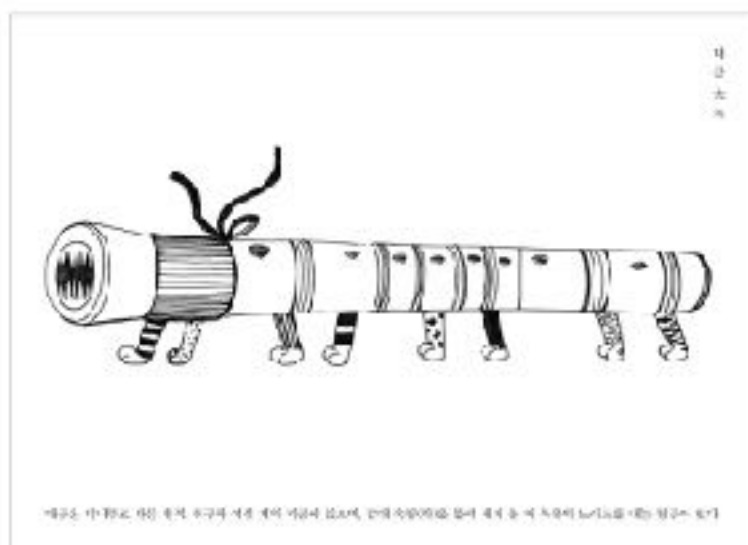
[그림 2-14] 악인, 내지, 1 당비파, 2 장구, 3 당피리, 4 당적



[그림 2-15] 악인, 내지, 5 통소, 6 해금, 7 징, 8 태평소



[그림 2-16] 악인, 내지, 9 나발, 10 박



[그림 2-17] 악인, 내지, 11 대금, 12 나각

5장. 왕실 의장기 속 신령한 동물 사전

작품 배경

반차도의 행렬 순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령과 서리들이 당부관, 경조당상, 예조당상, 호조당상, 헌부당상, 병조당상, 금부도사가 중앙 행렬로 가며 그 뒤로 국왕의 가마를 호위하는 군대가 이어진다. 군 행렬에는 왕실 의장기(儀仗旗)를 든 기수가 행렬 좌우로 이어지는데, 각 의장기에는 동물, 글자, 부적등 다양한 의미가 있는 도상이 그려져 있다. 왕의 신변을 보호하고 행차를 장엄하게 꾸미기 위해 수많은 군사는 물론 각종 의장(儀仗)이 동원된다. 의장은 왕이나 왕실 일원의 존재를 나타내는 상징물로서 행렬 주인공의 신분과 따라 그 수량을 달리하여 가마 근처에 배열시켜 행렬에 위엄을 부여한다. 의장기는 왕 그 자체, 왕권과 함께 하는 우주 그 자체의 상징이므로 만들 때마다 모든 요소를 더욱 힘이있고 강하고 신령스럽게 표현하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¹⁸

의장은 의장기와 의장물로 나뉘는데, 행렬의 의장기로는 군대에서 쓰는 군기(軍旗)와 순수한 왕실 의장기들이 있다. 의장기는 사각, 삼각의 비단에 상징적 의미를 지닌 자연물이나 동물 또는 신호를 위한 문자를 그려 넣은 것이다. 자루의 길이를 2미터 정도로 만들어 높이 세웠으며, 의장물은 권력을 상징하면서 군사적 성격도 동시에 갖는 도끼, 칼, 창에 속하는 것과 그늘을 만들어 주거나 덮개의 용도로 시작된 당(幢), 개(蓋), 산(傘), 부채 등이 있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 반차도안에는 의장의 기와 의장물이 모두 그려져있으나 의장기안의 그림 내용은 그려져 있지 않고 깃발의 이름과 형태만 표현

¹⁸ 이영희, 조선전기 의장기 디자인의 상징성 연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제47권 (2014. 5) pp.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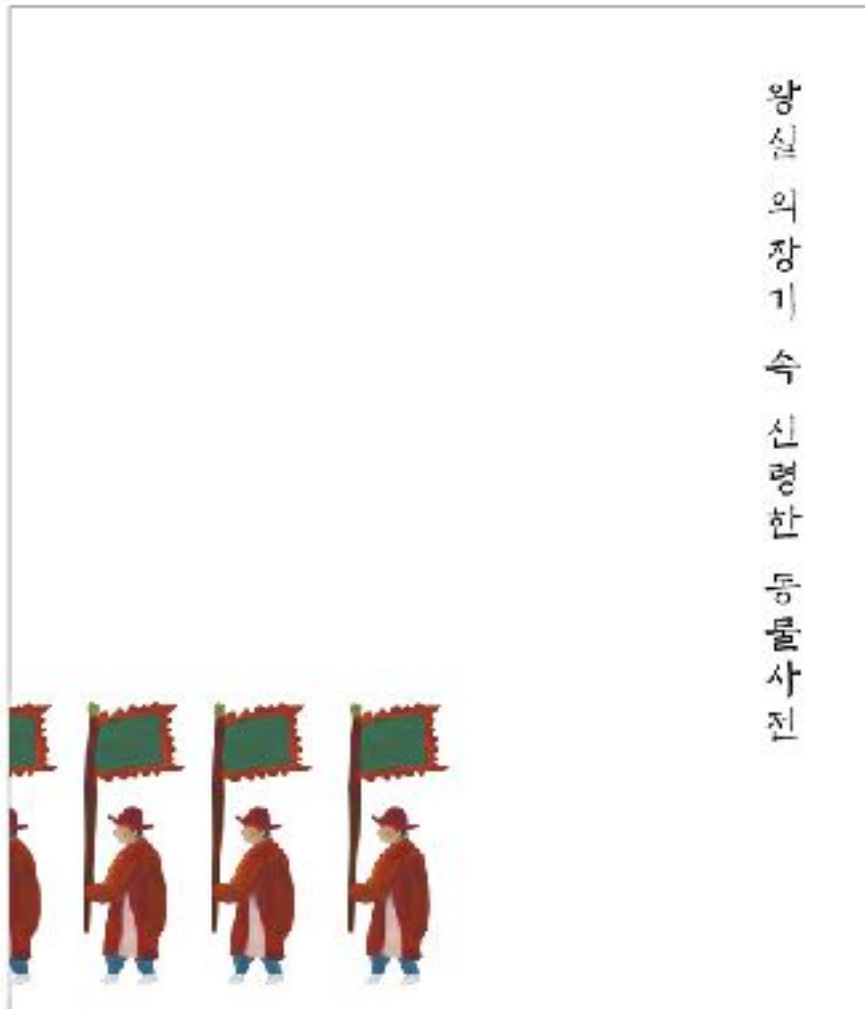
해놓았다. 이에 연구자는 영조정순왕후가례행렬에 쓰인 의장기 안의 그림 중 신호 기를 제외한 동물이 들어가 있는 기(동물문)만을 분석하여 의장기 안의 동물의 의미를 살펴보고, 의장물이 어떠한 목적과 상징성으로 국왕의 위엄을 나타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의장기 속의 동물문은 총 16종이며, 동물을 분석해보니 일반적인 현실의 동물이 아니라 모두 상상의 동물, 신화 속의 신비한 능력을 지닌 신수(神獸)이다. 대부분이 성군이 나왔을 때, 왕이 태평성대를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신령한 존재들이거나 나라를 부강하게 해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큰 깃발을 왕의 가마 앞뒤 좌우에 배치함으로 행렬을 더욱 웅장하게 보이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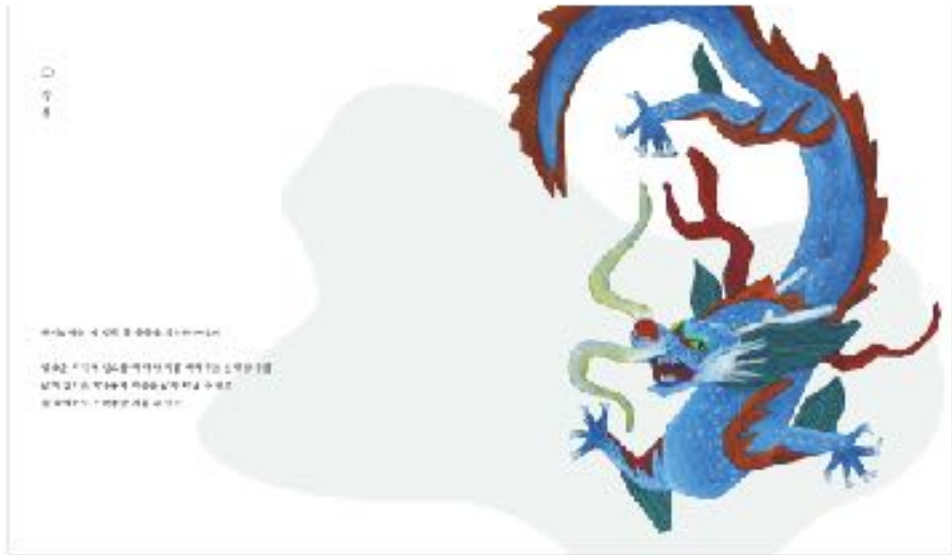
작품 연구

강렬한 느낌을 주기 위하여 동물 형태를 강하게 컷팅된 선으로 표현, 신성한 느낌을 주기 위하여 오일파스텔로 다양한 색을 혼합하여 채색하였다. 신수의 빠름은 속도감이 나는 거친 터치로 표현하였다. 화면을 구성함에 있어서 공간감을 부여하도록 이미지의 배경으로 신수에서 영감을 얻은 자유로운 형태의 면을 추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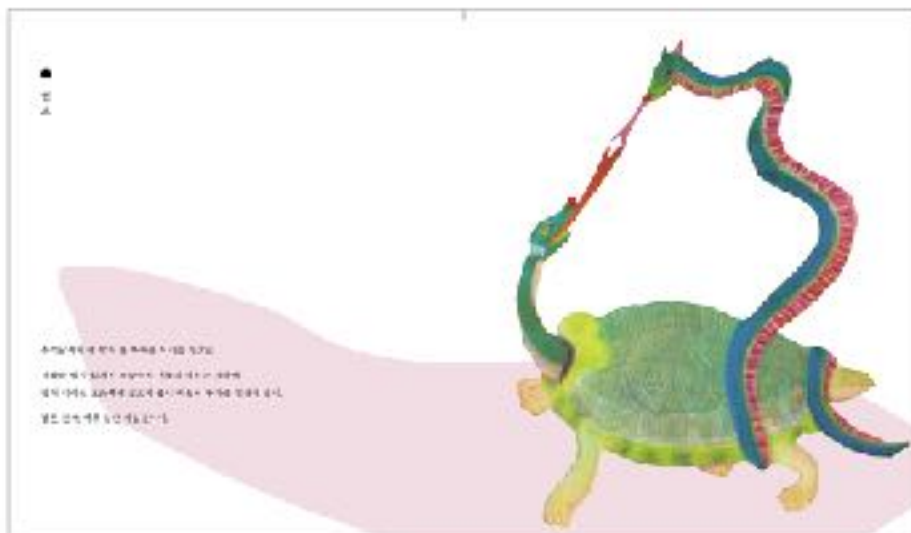
작품



[그림 2-18] 왕실 의장기 속 신령한 동물사전, 표지



[그림 2-19] 왕실 의장기 속 신령한 동물사전, 펼침면, 1 청룡, 2 주작



[그림 2-20] 왕실 의장기 속 신령한 동물사전, 펼침면, 3 백호, 4 현무



[그림 2-21] 왕실 의장기 속 신령한 동물사전, 펼침면, 5 황룡, 6 백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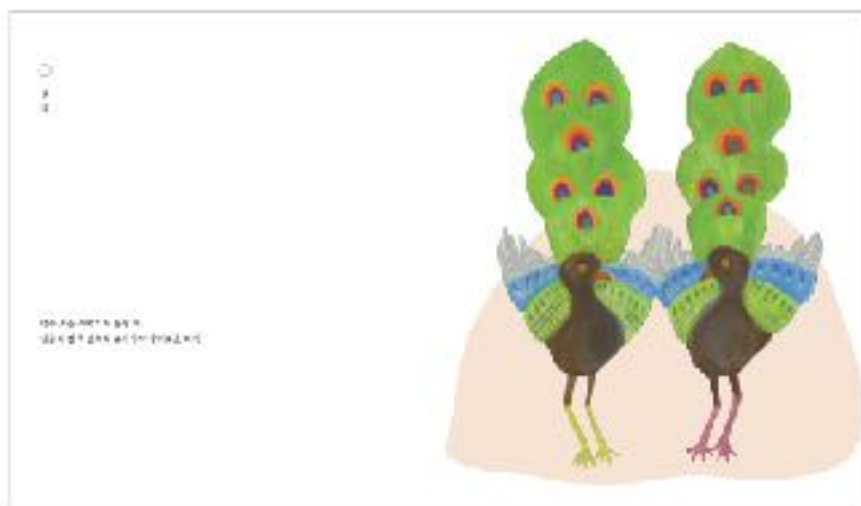
[그림 2-22] 왕실 의장기 속 신령한 동물사전, 펼침면, 7 벽봉, 8 삼각



[그림 2-24] 왕실 의장기 속 신령한 동물사전, 펼침면, 11 현학, 12 백학



[그림 2-25] 왕실 의장기 속 신령한 동물사전, 펼침면, 13 가귀선인, 14 봉황



[그림 2-26] 왕실 의장기 속 신령한 동물사전, 펼침면, 15 공작, 16 쌍룡

6장. 기쁨을 내리는 글 반교

작품 배경

영조가 이 혼례를 준비하는 동안 직접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정순왕후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 연구자가 영조에 대한 많은 연구 자료와 영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을 살펴보면 영조에 대해 생각한 점은 영조는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이성을 앞세워 나라를 다스리는 철두철미한 왕이라는 것이다. 다른 왕들처럼 본인의 감정을 시나 노래로 나타내는 표현은 거의 하지 않았다. 영조가 유일하게 혼례에 대하여 직접 설명한 내용이 실록에 있는데, 혼례 다음날 백성에게 반포한 교지문이다. 이 교지는 이 혼례가 왜 필요한가, 왕후로 모신 경주 김씨는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기쁜 날을 맞이하였으니 죄수들을 특별사면 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 된다.

작품 연구

반교는 하나의 글로 길게 적혀있는데 책의 형식으로 연구자가 임의 분류, 단락을 만들었다. 단락을 만들어 그 부분의 핵심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백성에게 반포 하는 왕의 모습을 시작으로 하였으며, 뒤 페이지에는 그 간 왕후의 자리가 비어 내조할 사람이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어두운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간택의 모습에는 후보자 처녀를 복숭아 열매로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이후 왕후 김씨의 모습은 복숭아 열매에서 탄생한 왕비의 모습으로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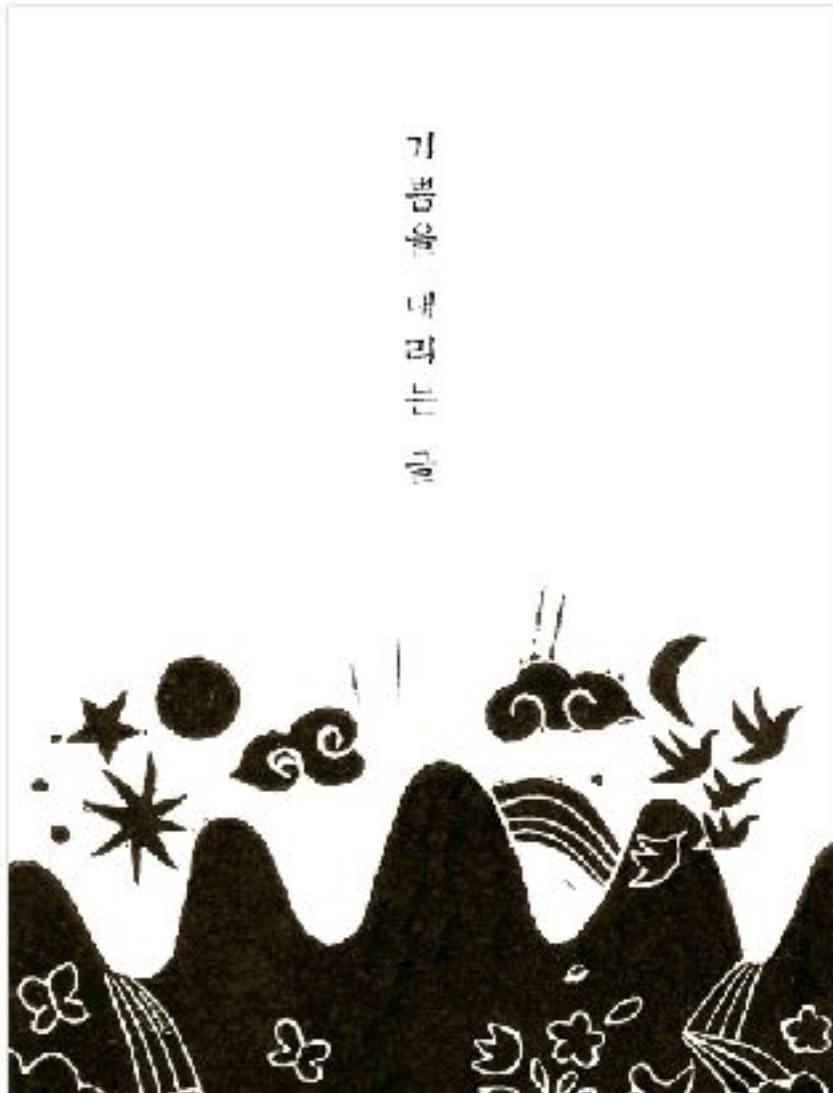
그림은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감정이 점차 상승되는 느낌을 주고자 하였고 마지막 장의 특별사면 부분은 왕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느낌을 주고자하여 일월오봉도를 배경 모티브로 선택하였다.

화면의 오른쪽은 그림으로, 왼쪽은 왕의 설명이 교지에 나오도록 하였으며 왼쪽 화면의 이미지 모티브는 글의 내용과 맞는 의미를 지닌 궁중 그림 요소들을 활용하였는데, 창덕궁의 돌담 문양, 왕실 병풍 속 신성함을 나타내는 구름, 다산을 상징하는 모란꽃 등으로 뜻이 맞는 것을 넣었다.

그림에는 영조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의도적인 그림 설정으로 조선 시대 초상화에 대부분 손을 그리지 않았고 영조 어진에도 손은 숨겨져있어 이에 따라 손을 그리지 않았다.

강직한 절대 군주가 말하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고자 흑백 리놀륨 판화로 제작하였다.

작품



[그림 2-27] 기쁨을 내리는 글, 표지



[그림 2-28] 기쁨을 내리는 글, 펼침면 1, 2



[그림 2-29] 기쁨을 내리는 글, 펼침면 3, 4



[그림 2-30] 기쁨을 내리는 글, 펼침면 5, 6

7장. 영조와 정순왕후, 각자의 마음

작품 배경

1757년(영조 33년) 2월, 1704년 영조와 혼례식을 치르고 53년간 해로했던 왕비 정성왕후(貞聖王后, 1692~1757년) 서씨가 사망했다. 삼년상이 지나자 왕실 가례의 예법인 육례(六禮)의 절차에 따라 계비를 맞았다. 영조는 고령을 이유로 재혼을 사양했지만 신하들 강권에 마지못해 승낙하는 방식으로 재혼을 허락했고, 1759년(영조 35년) 6월 66세의 국왕 영조(1694~1776년, 재위 1724~1776년)는 오흥부원군(鰲興府院君) 김한구(金漢耆)의 15세인 딸(정순왕후貞純王后)과 가례를 하게 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혼례에 대하여 삼간택을 행하여 유학 김한구의 딸을 정하고 대혼을 6월 22일 오시로 잡다.¹⁹ 라는 기록외에 당사자들의 만남 혹은 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이후 조선 후기 야사를 주로 기록한 ‘대동기문(大東奇聞)’에 정순왕후가 간택될 때의 일화가 있고 구전 설화도 있지만 이는 영조시대 이후 후대에 쓰여 전해져온 내용을 적은 글이므로 실록과 같은 사실 기록물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이에 연구자는 당시의 사실 정황을 기반으로 하여 66세 국왕과 15세의 처녀가 이 혼례를 대하는 각자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추측하여 영조와 정순왕후라는 인물의 성격과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작품 연구

앞 장은 모두 역사적 내용을 고증하여 문화원형을 재해석하여 만든 작품인데 마지막 책은 온전히 이 연구를 진행하며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자료를 시간대로 연결하여 표현한 연구자의 창작 작품이다.

¹⁹ 영조실록 93권, 영조 35년 6월 9일 무오 1번째 기사

영조와 정순왕후 캐릭터를 구상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고 연구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캐릭터를 확정하기까지 시각적 자료물과 영조실록, 승정원일기, 며느리 혜경궁 홍씨가 남기 한중록 등 둘의 성격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과 기록을 연구하여 구상하였다. 후대에 쓰여져 전해져오는 내용은 배제한 사실 기록에만 근거하여 해석하고자 노력하였다.

인물 분석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 반차도에는 인물들과 걸어가는 행렬의 옷 주름까지 자세하고 섬세히 그려져 있지만 왕과 왕비의 모습만은 표현되어 있지 않다. 이는 신성한 임금의 얼굴을 화면에 함부로 넣을 수 없다는 조선시대의 관행 때문이다. 이에 인물의 시각 표현을 위한 연구를 하였다.

영조

숙종의 후궁, 무수리 출신의 숙빈 최씨의 소생으로 태어나 노론 정치 세력을 통해 왕이 되기까지 겪은 시련과 출생 열등감으로 인하여 영조는 평생 정치적 균형 유지속 왕권 강화를 최우선하였다. 영조는 당파 싸움과 집권 세력 사이에서 왕권을 유지하고 있어서 계비를 간택할 당시 정치 세력이 강하지 않으나 명문가 집안을 우선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평생 소식(小食)을 하며 금주령을 내리는 등 검소함이 몸에 배어 있어 본인의 가례에도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하길 원하였고 가능한 기존의 물품을 수리해서 쓰도록 하였다고 가례도감에 적혀 있는데 혼례의 규모에 비해 행렬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고 화려하게 준비하였다.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신하와 백성에게 웅장하고 강렬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영조는 이미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긴 상태이고 세손까지 정해져 있었다. 이런 왕실 사정에서 정순왕후를 계비로 맞이한 것은 원자를 출산하기 위함보

다는 비어있는 왕후 자리를 채우고 백성들에게 왕실 행사 등에 나올 상징적인 인물이 필요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왕권 강화를 위한 정치적인 목적의 혼례를 하는 영조로 설정하게 되었다. 영조의 얼굴은 1900년 제작된 영조어진의 51세 모습을 참고하여 66세의 영조의 캐릭터를 구상하였다.



[그림 2-31] 연잉군 초상 1714, 영조 어진 1900

51세 영조어진을 살펴보면 소식으로 호리호리한 풍채에 눈매는 예리하고 높은 콧등을 지녔다. 영조의 외모에 관한 실록의 글을 보면 영조는 얼굴이 붉은 기가 많이 있다 하였고 이에 콤플렉스가 있어 어진을 그릴때 이 부분을 고민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피부색 표현에 붉은 빛을 더하기로 하였다.

정순왕후

간택 당시 정순왕후는 15세였으며, 사대부 집안이긴 하였으나 집안내 관직에 오른 자가 없어 살림 형편이 부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평범한 15세의 처녀가 어느 날 아침에 자신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66세의 국왕에게 시집가도록 정해진다. 당시 왕실에는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와 며느리 혜경궁 홍씨, 세손 등 비롯하여 수많은 왕실 가족이 존재하였다. 정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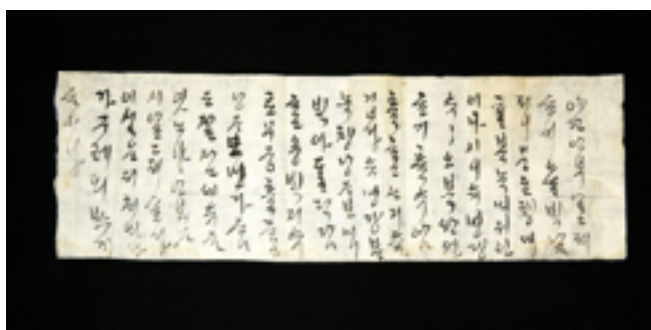
왕후는 15세에 왕비이자 왕실 어른의 자리이라는 엄청난 위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다. 15세의 처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무서운 일이 아니었을까 라는 추측을 하였다. 참고로 영조의 며느리인 혜경궁 홍씨가 쓴 자서전인 한중록을 보면 간택된 후 두려운 마음에 어머니와 매일 밤 울었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정순왕후가 혜경궁 홍씨처럼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조용하고 순진하게 감당하는 사대부 집안 처녀라고 생각하기에는 왕비가 된 후 일어나는 상황 속 정순왕후의 모습은 전략적이다. 혼례 이후 정순왕후의 집안은 새로운 척신세력으로 등장하여 집권 세력의 분열에 가세하였다.

정순왕후 친정이 노론의 중심 가문이었음에 비해 아들이 된 사도세자는 소론에 기울어져 노론에게 비판적이었고, 그 내외가 본인보다 10세나 연상인 데서 빚어지는 갈등 때문에 1762년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이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오빠 김구주가 이끄는 세력이 영조 말년에 사도세자의 장인인 홍봉한 중심세력과 맞서고, 친정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는 벽파가 정조대에 시파와 대립하는데 정순왕후가 중요한 정치적 배경이 되었다.²⁰

여러 사실 관계에 미루어 정순왕후의 캐릭터를 암전하고 지혜로운 처녀보다는 궁궐안 정치판에서 조용히 본인의 세력을 만들어가는 야망가의 모습으로 설정하였다.

정순왕후가 1801년 조카 김노서에게 쓴 한글편지의 필치를 보면 궁궐의 여인들이 쓰던 바르고 예쁜 글씨체가 아닌 대범하며 힘 있는 남성적 필치를 지닌 것을 성격 구성에 참고하였다.

²⁰ 두산백과, 정순왕후



[그림 2-32] 정순왕후 한글편지, 1801

후세에 남겨진 영조 어진과 달리 정순왕후의 모습은 남겨져있는 초상화가 없으며, 외모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없으나 ‘용모의 예쁘고 누추함과 언어의 조용하고 우아함으로써 취한다’ 고 영조실록에 정순왕후의 용모가 아름다워 영조가 흠족해하였다는 언급이 있어 정순왕후의 외모를 조선시대 미인의 조건에 맞추어 생각해보았다. 허나 보편화된 조선시대 미인형인 둥근 얼굴과 반달눈썹의 모습과 왕실의 미인형의 기준이 다르며 왕실은 얼굴형이 동그랗기보다는 약간 사각진 형태이며 눈썹은 갈매기형으로 강한 외모를 미인으로 보았다는 기록이 있어 이를 참고하였다.

영조와 정순왕후의 관계

혼례 후 영조는 왕가 사돈에게 주는 가장 높은 직위에 왕후의 아버지와 오빠, 남동생을 등극시켜주었다. 정치적 파를 지니지 않은 집안을 사돈으로 맞아 현 정치세력의 갈등에 다른 흐름을 주어 파벌을 약화시키고 왕권 강화를 위한 영조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파악하였다. 그렇지만 영조는 어린 계비를 아껴주었고 혼례 후 정순왕후가 수두에 걸려 크게 고생하자 영조가 각별히 신경을 썼으며 완치 되고나자 크게 기뻐하였다는 기록이 영조실록에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영조는 정순왕후에게 애정을 주었다고도 보여진

다. 이후 영조는 왕실 행사에 정순왕후와 함께 하였으며, 왕이 직접 농사를 짓는 친경(親耕)과 왕비가 누에를 치는 친잠(親蠶) 행사를 함께 하며 백성을 위하는 왕의 권위와 왕비의 자리를 보여주었다. 영조가 83세에 승하하기까지 17년을 정순왕후는 자식 없이 왕후의 자리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국왕을 보필하였다.

가례를 준비하던 당시

절대 권력의 노련한 나이 많은 임금의 혼례 절차에서는 최대한 검소하게 진행하도록 하였지만 행렬만큼은 왕의 위엄과 왕권 강화를 위하여 더욱 화려하게 진행하였다. 신랑이 신부를 처가에서 데리고 오는 친영 절차도 당시에는 보편화 되지 못하였고, 임금이 어찌하여 직접 모시러 갈수 있느냐며 반대하던 대신의 의견을 무릅쓰고 백성에게 친영제를 대중화 시키기 위하여 몸소 실천할 만큼 백성과 나라를 생각한 왕이었다. 아마도 영조는 도성한 행렬 가마에 앉아 신하와 백성에게 모범을, 본인의 강력한 왕실 위엄을 알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였을 거라 판단하였다.

본인의 아버지보다도 10살이 많고, 본인과 51세의 나이차를 지닌 임금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15세 왕후가 가마에 앉아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마음속으로 왕실내 살아남음, 야망에 대해 생각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그렇지만 15세의 아직 어린 소녀라는 것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혼례행렬속 가마를 타고 가고 있는 영조와 정순왕후, 각자의 상황과 마음을 이미지화 하였다.

이 주제는 책의 같은 시간속의 각자의 다른 상황과 마음을 보여주는 것을 중심으로 하므로 책의 구조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다. 둘의 상황을 한 권 안에 두 이미지를 중첩 시켜 표현할 것인지, 두 권으로 나누어 표현할지에

대한 실험을 여러 차례 하였다. 또한 시간의 흐름을 아코디언 북의 형태로 길게 이어서 같것인지, 나누어 페이지로 끊어 같지에 대한 여러 형태의 더미북을 제작하였다. 연구자는 최종적으로 둘을 한 권 안에서 양쪽 날개가 열리는 구조로 작업하였다. 왼쪽은 정순왕후, 오른쪽은 영조의 이야기가 각각의 책으로 나오지만 페이지를 펼쳐 둘을 같은 페이지로 맞춰보면 같은 상황안의 입장이 나오도록 하였다. 첫 페이지에서는 각자의 다른 시간이지만 페이지가 넘어감에 따라 둘이 연결이 되고 마지막 페이지는 한 장의 큰 화면으로 둘의 혼례식 당일이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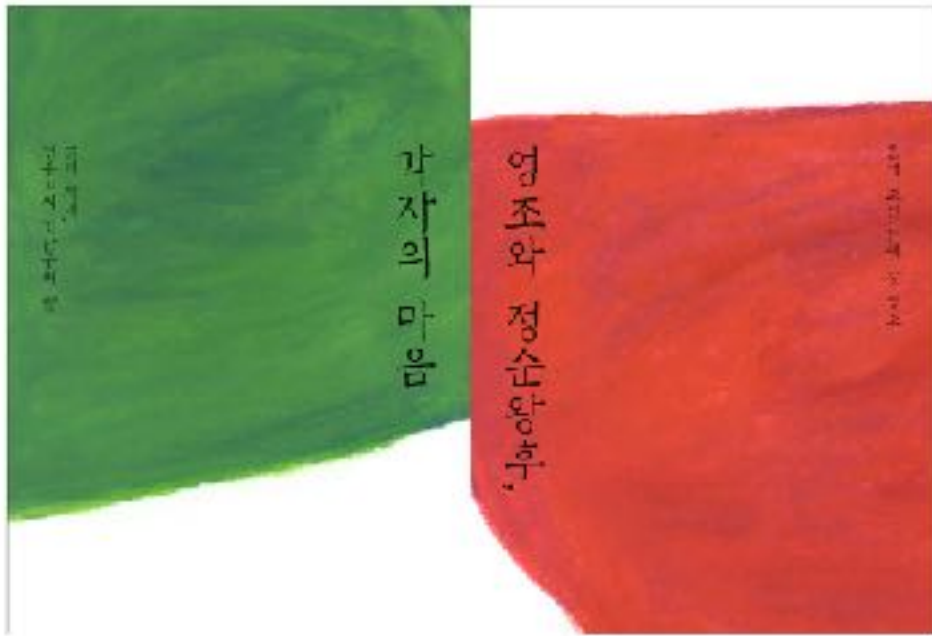


[그림 2-33] 영조와 정순왕후, 각자의 마음, 초기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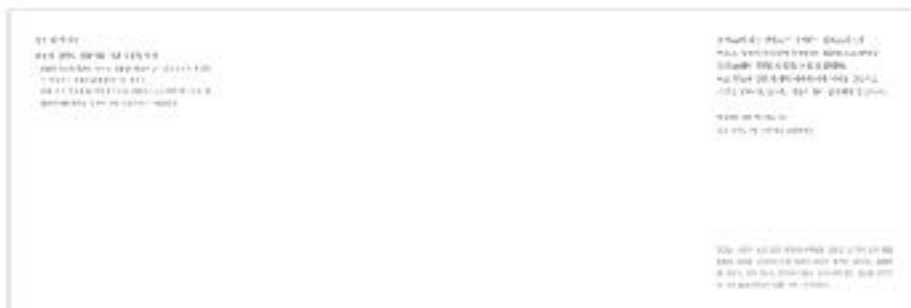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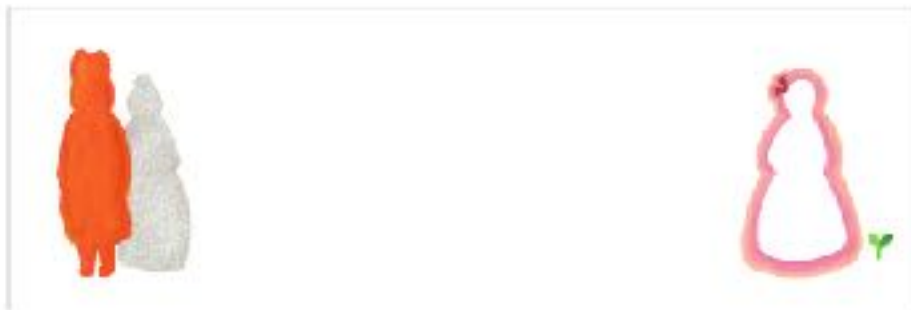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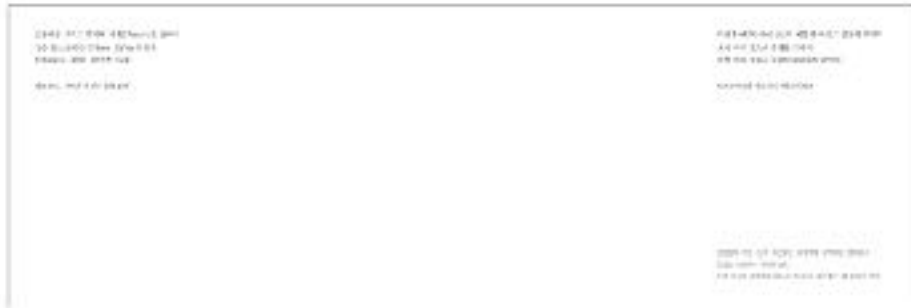
연구 초기에 준비한 주인공의 외형 표현이 막상 책으로 진행하면서는 나오지 않았다. 구체적인 외형의 표현을 잡으니 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림이 나오게 되었다. 학습만화 같은 구조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연구자의 작품 방향과는 맞지 않아 작품을 연구자의 추상적인 표현으로 바꾸었다. 허나 추상적이고 단순한 표현으로 진행을 하니 연구자가 기본 연구한 15세 소녀의 감정 변화와 심리 상태보다는 상황 사건 흐름과 영조의 입장에 내용이

더 맞춰져 소녀의 감정선은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를 별도로 소녀의 마음속만 보여주는 서술형 소책자를 따로 두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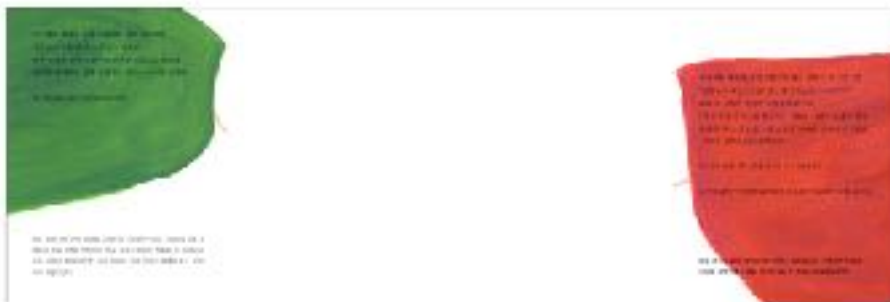
작품



[그림 2-34] 영조와 정순왕후, 각자의 마음, 표지



[그림 2-35] 영조와 정순왕후, 각자의 마음, 펼침면 1, 2, 3



[그림 2-36] 영조와 정순왕후, 각자의 마음, 펼침면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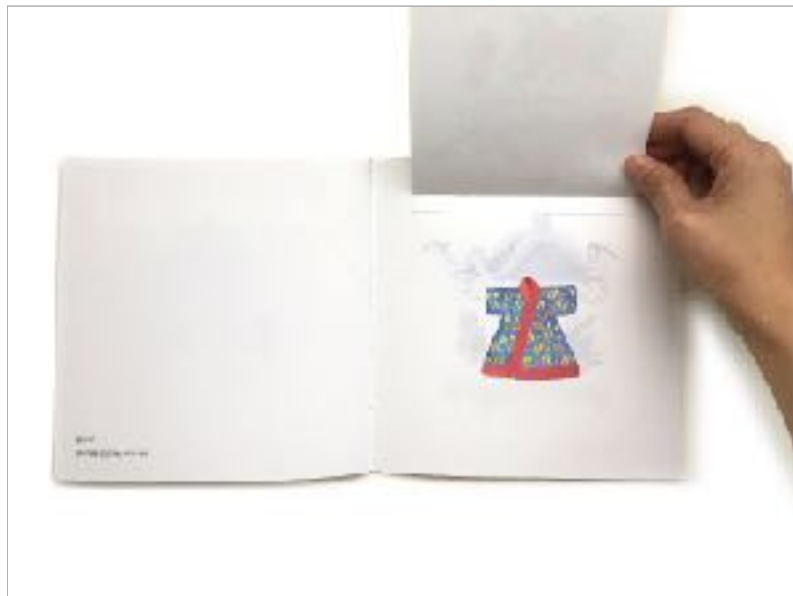
8장. 최종 작품



[그림 2-38] 최종 그림책 모음



[그림 2-39] 최종 그림책 - 함께 걷는 자, 길



[그림 2-40] 최종 그림책 - 여덟 가마



[그림 2-41] 최종 그림책 - 악인



[그림 2-42] 최종 그림책 - 왕실 의장기 속 신령한 동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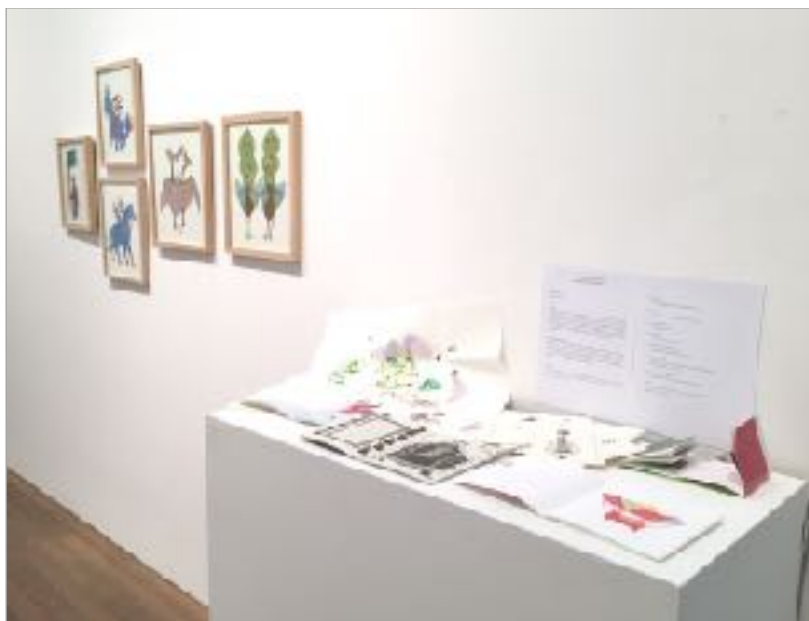


[그림 2-43] 최종 그림책 - 기쁨을 내리는 글



[그림 2-44] 최종 그림책 - 영조와 정순왕후, 각자의 마음

전시



[그림 2-45] 최종 연구작 전시

Ⅲ. 결 론

III. 결론

연구 초기에 원작 그림을 재현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다. 원작 반차도 그림을 문화 원형 그대로 유지하여 고증하는 것에 초점을 두다보면 연구자의 그림 스타일과 작업 방향을 잃고 문화원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작품이 나오게 되어 연구에 의미를 잃고 혼선을 갖게 되었다. 연구자만의 작품 세계와 반차도 원작 사이의 갈등과 재구성에 있어 ‘균형’이 작품 표현 연구의 중요 사항이 되었다.

초기의 스케치와 작품은 원형 전반을 유지하는 것이 많이 보이지만 후로 갈수록 원형의 형태만을 유지한 채 연구자의 방향을 찾아가게 되었다. 연구자의 학업 배경에 따라 유럽식 그림책 표현법, 색 사용, 서양 북아트 제본 방식이 우리 고유문화 원형 연구에도 어울어질 수 있게 표현하려 노력하였다.

주제마다 각각 다른 다양한 재료와 연구 방법이 전체의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각기 다른 연구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각각의 이미지 작품들을 비교하여 보니 연구자의 작품 스타일과 개성이 고유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어 이후로는 각 주제마다 과감한 시도를 시도할 수 있었다.

위의 두 가지 고민을 문화 원형과 창작, 연구자의 정체성과 새로운 표현 시도 사이의 ‘답기와 답아가지 않으려는 것에 대한 갈등’이라 생각하는데 결국 연구자는 이 모두를 융합하여 답아가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박사논문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는 ‘나’를 알게 되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라는 고전적인 고민의 시작점인 민족적인 정신 바탕을 알

게 되었고, 너무나 당연한 생활환경이어서 그냥 넘어갔던 문화적 상황을 다시금 차근차근 살펴 우리의 깊은 부분에 자리한 정체성을 고찰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스스로가 어떤 문화와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작가로서의 작품관 중심을 세울 수 있었다.

작품을 결과물로 내놓기까지 자료 조사와 역사, 상황 전후 등 역사 연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다. 내용을 파악하여 들어가다 보면 이 단락뿐만 아니라 조선 전체를 알아야 하는 경우도 많았고 한자어 단어가 현대에 쓰이지 않는 것이어서 원문을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왕후의 옷한 벌을 그리는데 어떠한 색감과 무늬가 들어가는지 고증하기 위해 조선시대 왕실 복식사 전체를 살펴보거나 음악 연주자의 악기가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알아야 느낌을 시각화할 수 있으므로 각 악기의 연주 동영상을 모조리 찾아 들었다. 의장기 동물의 내용을 연구하다보면 설화와 문화원형이 되는 중국 신화까지 파악하였다. 그렇게 많은 시간과 자료를 통해 준비한 연구 내용이지만 연구자의 작업 안에 오류가 있을까하여 여러 차례 검증하였고 전문가의 연구 자료와 의견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공개되어 있는 영조 관련 대부분의 역사 자료를 보았지만 아직도 연구자는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연구 내용 중 더 깊이 알고 싶은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여 이는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

그림책은 그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림의 흐름, 글, 그림 표현을 극대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편집 디자인, 그림의 성격을 대신해줄 알맞은 폰트, 인쇄할 종이의 물성 등 많은 부분을 실험하고 최종 선정하는 수많은 연구 순서를 반복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일러스트레이션과 밀접한 학

은 밀접하지 않은 디자인 분야를 어떻게 고유문화와 그림책에 적용하여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더욱 깊이 연구할 수 있었다.

연구자의 연구는 하나의 고유문화 원형을 분석하여 그 안에서 다각도의 내용으로 구별, 선택하여 재구성하는 시각 연구 방법의 하나의 예시가 되어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우리 문화원형 연구의 중요성과 잠재 가능성을 더욱 긍정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었다. 앞으로 우리 고유문화의 수 많은 아름답고 독특한 주제를 찾아 연구하고 시각화하는 작업을 이어가고자 한다. 작가의 시각으로 해석한 독창적인 구성 형식을 담아 고유문화의 그림책 영역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송진희, 문화도시 경쟁력과 디자인, 기문당, 2007
- 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세계의 도시디자인, 보성각, 2010
- 3) 문동석저, 한양, 경성 그리고 서울, 상상박물관, 2013
- 4) 강명혜, 한국 문학, 문화와 문화콘텐츠, 지식과 교양, 2013
- 5) 김기덕, 한국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 북코리아, 2008
- 6) 박인창, 문화원형 산업개발을 위한 전통문화의 스토리텔링, 조형미디어학, 2013
- 7) 안진근,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0
- 8) 오병근, 지식의 시각화, 비즈앤비즈, 2013
- 9) 서울특별시 제작 만화가이드북 '서울의 5대 '궁''
- 10) 김문식, 신병주저, 조선 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2005
- 11) 이성미, 영조 대의 의궤와 미술문화,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 12) 신병주, 66세의 영조 15세 신부를 맞이하다, 효형출판, 2001
- 13) 아마가와 에미코, 기무라 요이치로 저, 조선왕실 의궤의 비밀, 기파랑, 2012
- 14) 국립중앙박물관저, 145년 만의 귀한, 외규장각 의궤, 국립중앙박물관, 2011
- 15) 백영자, 궁중의장기의 부활_황제를 수호하는 자들, 경춘사, 2010
- 16) 박영수, 유물속의 동물 상징 이야기, 내일아침, 2005
- 17) 신명호, 심재우, 임민혁, 이순구, 한형주, 박용만, 이왕무, 조선의 왕비로 살아가기, 돌베개, 2012

- 18) 임혜련, 정순왕후, 수렴청정으로 영조의 뜻을 잇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 19) 정병설, 혜경궁 홍씨, 회한의 궁중생활 칠십 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 20) 혜경궁홍씨, 한중록, 문학동네, 2010
- 21) Mark Wigan, Visually Dictionary of Illustration, AVA Academia, 2009
- 22) Blake, Quentin, Beyond the page, Tate Pub, 2012
- 23) Rebecca Zurier, Picturing the City: Urban Vision and the Ashcan Schoo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 24) <http://waks.aks.ac.kr/>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
- 25) <http://www.sfac.or.kr/> 서울문화재단
- 26) <http://www.seouldesign.or.kr/> 서울디자인재단
- 27) <http://korean.visitkorea.or.kr/> 한국관광공사
- 28) <http://www.visitseoul.net/> 서울시 공식 관광정보사이트
- 29) <http://uigwe.museum.go.kr/>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 30) <http://sillok.history.go.kr/> 조선왕조 실록
- 31) 김유경, 문답체를 통해 본 영조 글쓰기의 특징,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32) 임혜련, 순조 초반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垂廉聽政)과 정국변화, 조선시대사학회, 2000
- 33) 박은경, 최병길, 가정혜, 역사문화유적지로써 경복궁 매력속성에 대한 IPA, 관광학연구, 2010
- 34) 이민선, 영조 연간의 궁중회화와 영조의 그림 인식, 호남학연구원, 2012

- 35) 이미선, 영조 후궁 暎嬪李氏의 생애와 위상, 호서사학회, 2015
- 36) 임혜련, 영조~순조대 혜경궁(惠慶宮)의 위상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2015
- 37) 노혜경, 영조어제첩에 나타난 영조노년의 정신세계와 대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 38) 신경숙, 영조조 친잠례와 악장,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5
- 39) 강문식, 의궤(儀軌)를 통해 본 『영조실록(英祖實錄)』의 편찬 체계, 조선시대사학회, 2010
- 40) 정만조, 혜경궁의 삶과 영조대 중·후반의 정국, 조선시대사학회, 201
- 41) 이경희, 이은주, 조선후기 왕세자 의장기(儀仗旗)의 크기와 재료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학회, 2015
- 42)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실의 어진과 진전, 국립고궁박물관, 2015
- 43) 국립문화재연구소, 다시보는 우리 초상의 세계, 조선시대 초상화 학술논문집,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 44)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초상화의 비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2011
- 45) 박은지, 어린이를 위한 국내 지식그림책의 미래설계,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2010
- 46) 윤민용,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폐막, 주빈국 한국 뮐 얻었나, 경향일보, 2009년 03월25일
- 47) 최경희, 이야기그림책에 나타난 한국전통문화, 한국아동문학연구, 2011
- 48) 최은영,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례의 편찬과정과 기록학적 가치, 충남대학교, 2009
- 49) 장범순, 일러스트레이션의 ORIGINALITY (작가 고유의 표현)에 관한 연구,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2009

- 50) 이연학, 문화교류를 위한 한국적 문화정체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8
- 51) 우설예, 17-18세기 동서양 일러스트레이션 비교 연구, 홍익대학교, 2017
- 52) 황순선, 미술관을 콘텐츠로 한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2010

ABSTRACT

A Study on Visual Reconstruction of the Uigwe : 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Based on the pictorial book to an auspicious ceremony parade of a King Yeongjo and Queen Jung Soon

Huh, Kyung W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bout the visual reconstruction of Korean culture. The aimed to construct the creativity and information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as visual culture content and to study them in the form of a picture book as a sequential design (design having continuity).

Among the various original cultural forms of Korea, the Uigwe (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which is a sort of comprehensive record of the important ceremonies and event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royal family—was selected as the subject matter. Among the various Uigwe written throughout the Joseon period, this study focuses on the Banchado (documentary painting) of King Yeongjo and Queen Jung Soon's auspicious ceremony parade. To establish information about auspicious

ceremony parades, we examined the preparation and contents of the Banchado of King Yeongjo and Queen Jung Soon' s auspicious ceremony parade, which depicted the capital city parade held after a marriage ceremony; it has been divided them into detailed themes, composed contents, and created images. It was not merely about dividing parade images on the surface and visually organizing them, but it has been made efforts to find the records of the Banchado, the Garyeo Dogam Uigwe, the Annals of Yeongjo, and the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including the situation before auspicious ceremonies were performed, the situation in the present parade, and the postbellum situation which occurred after the parade, in order to perform evidence-based historical research by organically connecting them, and to maintain the original cultural form.

It is important to construct native culture as the creator's own ingenious contents along with various unique contents. However, since the representation of culture gives existential meaning, spirit, and significance to a country and its people, we attempted to employ a precise approach and conduct accurate research regarding the original cultural form and proximity culture so as not to distort culture or deliver inaccurate inform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parade in general per chapter and gradually grasps the details of the parade. Each theme was given a flow of sequence where pictures are sequentially listed in the form

of a picture book suitable for the theme and the story' s progress. Moreover, if these individual themes are listed in sequence, they go from the outside to the inside of the Banchado so that the flow of themes can be linked to each other. This is an intentional flow composition that conveys information which enables readers to gradually know about the Banchado in detail, and, at the same time, allows them to think about the situation of the royal family, the marriage ceremony, and the people in the Joseon dynasty at that time. In addition to contents, the authors of this study experimented with various methods in terms of expression as well. It has been designed the book with different book art, bookbinding methods, and story flow structure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theme and picture contents, studied the direction for maximizing the flow of book contents, and completed the picture book.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that it attempted to use the visual research method of analysing a single original Korean cultural form, and of distinguishing, selecting, and reconstructing the contents from various view.

Keyword : auspicious ceremony parade of a King Yeongjo and Queen Jung Soon, 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Korean Culture, Illustration, Picture book, Sequential Design